



# NEW SPIRIT

Mindanao, Philippines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1111 Copper Street  
San Rafael Village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2020년 3월

선교편지 제 129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 아팔라야 예일 교회 건축을 시작한지 벌써 4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잡초와 야자수로 덮인 곳이 변하여 이제는 예배당과 학생들을 위한 교실 2개를 갖춘 건물이 들어섰고, 지난 달에는 현지 사역자를 위한 방 2개와 부엌을 갖춘 사택, 그리고 사무실과 화장실 2개의 기본 공사를 마치었습니다. 이제까지 마치 100미터를 힘껏 달리듯이 빠른 속도로 건축을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5년 전 디고스 예일 교회 건축은, 당시에 맡겨진 학원 사역으로 인하여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건축 현장에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 아팔라야 예일 교회 건축 현장에는 매일 나와 모든 건축 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축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더위 가운데 수고하는 작업자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단 하루도 건축이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작업자들이 건축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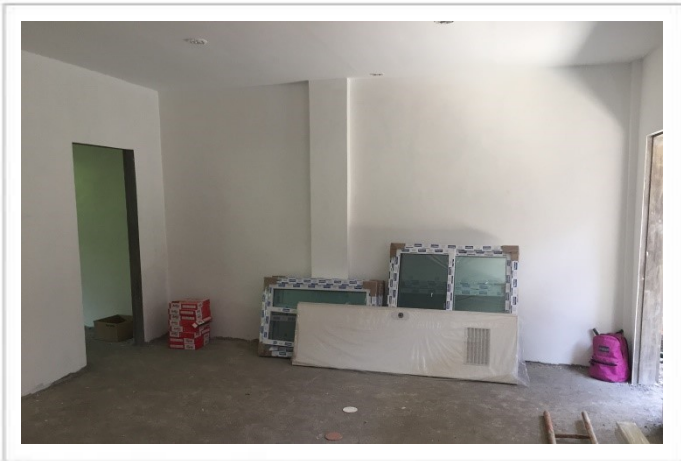
지난 3개월간 교회의 큰 골격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완성을 향하여 섬세하게 다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과 교실 실내 바닥을 시멘트로 끝 마무리를 하여 페인트 칠을 할 예정이고, 사택, 부엌, 화장실은 타일을 붙이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벽에 페인트 칠을 해 가면서, 각종 문과 창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교회 담장을 두르고, 페인트 작업을 해야 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의 작업자가 수고를 했는데, 지난 주부터 2명의 작업자가 더 충원되어 모두 16명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아팔라야 지역의 선교 사역도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예배와 각종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아팔라야 고등학교 및 아팔라야 초등학교의 학원 사역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아팔라야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추천 받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아팔라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장학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 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건축되는 아팔라야 교회를 섬길 전임 사역자를 물색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헌신된 사역자를 찾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고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마치 선교지로 떠나는 것처럼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 달라는 기도가 최근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팔라야 교회의 완공을 가까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마지막 때에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될 것을 기대하며, 진행하고 있는 건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 56:7)



 무슬림 지역에 위치한 바카카 교회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실내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흙먼지가 실내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종횡무진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로 인해서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깨끗해질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청소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아이들이 청소를 하게 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제한된 빗자루와 걸레 수량으로 인해서 오직 선택(?) 받은 아이들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기 원하는 이유는, 첫째 청소를 마친 후에는 수고한 댓가로 사탕이나 과자를 주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비교적 깨끗한 화장실과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 지역의 홍수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 실내 바닥과 벽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을 비교적 깨끗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공용 화장실과 공동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 빨래터에서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실외에서 옷을 입은 채로 물을 끼얹으며 목욕을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바카카 교회는 수도 시설 뿐만 아니라 깨끗한 변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카카 교회가 위치한 땅을 소유한 주인이 렌트 계약 기간이 종료 되는대로 교회를 내보내고, 현재의 시설을 연립 숙소로 개조하여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계약 갱신이나, 매달 지불하는 높은 가격의 전기료와 물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 왔는데, 더 이상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렌트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카카 교회가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이지만, 무슬림 지역의 선교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역을 귀히 여기며 열심히 감당해 왔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면서도 이러한 난관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막상 소문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더 강하게 역사 하셔서, 바카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렘 51:46)**





### 기도 제목

1. 디고스예일교회, 익핏교회, 바카카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아팔라야 예일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